

##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른 유형별 특성

백승희\*

### 초 록

본 연구는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에 대한 실질적인 집단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각 잠재계층별 특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충남 결혼이주여성 3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다양성 구현에서의 잠재계층을 확인한 결과 3개('저수준집단', '중수준집단', '고수준집단')의 잠재적인 계층으로 구분되었으며, 3개의 잠재계층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문화예술활동참여도, 관람하고 싶은 한국·모국의 문화예술,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 개념과 의미 인지도, 가치에 대한 동의, 의식수준, 충남 정책 강화 필요성 그리고 조례제정 필요성에서 계층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계층에 따른 특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교수(sh100@koreatech.ac.kr)

## I. 서론

2001년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인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했다. 164개 회원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응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의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문화다양성이란 각 집단이나 지역이 자기 문화를 표출하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공존토록 하는 것, 즉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새로운 정책철학으로 여러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문화의 보호에서부터 사회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로서 다양한 문화의 융합과 새로운 문화 창출을 포함한다. 즉 타인과의 차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수자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다수자를 대상으로 해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도삼·조윤정·이정현, 2018). 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커지는 만큼 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집단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과정에는 3개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05년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가 논의되면서 문화적 예외론이 발생했던 때이며, 두 번째는 2010년 문화다양성협약을 체결하면서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접근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4년 문화다양성 법규를 제정하면서 소수에 대한문화권 보장과 사회갈등 해소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시점이다(노시훈, 2020)

현재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요한 사회구성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은 외국인 이민자 중 외국인 노동자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혼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일정기간 머물다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한국사회 속에서 평생을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조선주·오현경·민현주, 2017). 또한 가정을 꾸리고, 다음세대를 낳아서 양육하는 ‘기혼여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는 차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전윤주·서광봉·임진선, 2012)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한국 거주 이주민들에 비하여 정부 정책의 꾸준한 관심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이진형, 2019). 이중에서 총남은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4% (117,094명)로 전국 1위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대비 결혼이민자 비율

은 8.9%(8,564명)를 차지하고 있다. 8,564명 중 결혼이주민 여성은 7,537명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 충남은 다문화사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정책을 추진해 온 지자체로 평가되지만, 아직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다양성 관련 조사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결혼이주민은 오랫동안 문화예술이나 문화다양성 측면 보다는 안착과 자립의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이 되어 왔다, 즉 법·제도 그리고 정책의 발전 및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조사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우복남, 2019). 최근 한국인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혜숙 외, 2011; 송유진, 2008; 윤인진·송영호, 2013; 황정미, 2009). 그러나 지역의 도시화 정도, 행정구역 및 외국인 비중 등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상수 외, 2012; 민지선·김두섭, 2013). 한편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대한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 특히 충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우복남(201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활동 참여도, 활동 만족도,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 직접관람경험, 문화다양성 가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등의 실태를 살펴본 연구도 우복남(2019)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복남(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을 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특정한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모두 같은 집단이 아니며 개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각 집단별로 관련된 고유의 특성 요인들이 있다고 하였다(Moffitt, 1993). 개념적인 연구에서는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어떻게 유형이 분류되는지, 각 구현 수준 유형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 수치화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유형별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개념적인 구현 수준 분류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인 진단 분류와 통계화 된 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유형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잠재계층의 특성을 살펴보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적인 대상을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변인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과 구별되는 사람중심의 접근(person-centered) 방법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집단을 확인하고, 차별적 특성요인을 찾아 서로 다른 개입방법의 계획이 가능하게 한다(Lanza & Rhoades, 2013). 이러한 집단분류 연구는 문화

다양성 구현수준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분류되는지, 집단별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충남 결혼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 및 혼인귀화자(한국국적 취득)여성 수집 자료를 사용하여,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각 잠재집단별 활동 참여도, 활동 만족도,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 직접관람경험, 문화다양성 가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에 있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집단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둘째,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른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한 사회에 내재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을 뜻한다 (Johnson & Johnson, 2002). 사회에 내재하는 다양성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지만 문화다양성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특히 문화는 정치·사회 그리고 관계적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양상이 있다(Arnesen et al., 2008).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개인의 관점과 가치관의 작용은 특정한 문화를 가치 있는 것 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화다양성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시작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노동시장 이전에 따른 이주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발전하였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에서 지적하듯,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이 지닌 고유한 지적·정신적·물질적 그리고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문화 및 예술 형식뿐 아니라 생활양식, 가치체계, 사는 방식 그리고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원의 가치체계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떠한 계층이나 집단의 문화도 왜곡됨이 없이 공존하여 당당히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의 개념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가 가진 본래적 속성에 기초해 문화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그것이 소수문화이거나 사회로부터 단절 혹은 분리된 문화라 하더라도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문화가 구성되어야 함을 말한다. 곧 문화 구성의 실천전략이 문화다양성인 것이다(라도삼·조윤정·이정현, 2018). 이처럼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실제 존재한다는 현상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현상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윤경·류상희·이은주, 2015). 따라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공존을 위해서는 타민족을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개별 민족 사이의 동등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문화기본법 제4조)라고 정의한 개념과, 문화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내 그리고 집단과 사회 간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활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우복남, 2019).

## 2. 결혼이주여성

현재 한국사회에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요한 사회구성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특수성을 지닌 집단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 중에서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이주한 이주자, 또는 다른 목적으로 국제이주를 했으나 한국에 살면서 국제결혼을 한 이주자로 정의할 수 있다(이현서 외, 2013). 결혼이주여성은 2006년 대통령 주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회의에서 여성결혼이민자(Female marriage immigrants)라는 용어를 채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유입은 입국 시기와 확산과정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민정·이영선, 2017). 첫 번째 유형은 1980년대 말 이후 한국의 중하층 남성들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로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대거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내 거주기간이 대체적으로 길다는 특성이 있

다. 두 번째 유형은 1990년 전후 종교단체의 주선, 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필리핀, 일본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 번째 유형은 2000년 이후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캄보디아 지역의 동남 아시아계 여성들이나 친지, 친구 등의 소개나 연애로 결혼한 중국계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황과 추세 속에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송화성·이영안·강영애, 2020). 국가통계로 살펴보면, 2018년 11월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결혼이주자가 국내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되는데, 이 중 여성이 약 13만 명으로 약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37.1%, 베트남 27.1%, 일본 8.6%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혼이주여성 출신 국적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으로 좀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이민자 중 외국인 노동자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결혼을 계기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 내에 평생을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조선주·오현경·민현주, 2017), 따라서 이들의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 관련 법, 조례 및 정책 수립 시 문화다양성 가치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려 및 연구가 필요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충남 결혼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 및 혼인귀화자(한국국적 취득)여성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333명이다. 이 중 천안 거주자 59명(17.7%)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는 30대가 150명(45.0%), 한국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154명(46.2%),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34명(40.2%), 월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120명(36.0%) 그리고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121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333

변인		명	%	변인		명	%
거주지	천안	59	17.7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10	3.0
	공주	7	2.1		중학교 졸업	40	12.0
	보령	25	7.5		고등학교 졸업	134	40.2
	아산	58	17.4		대학교 졸업	104	31.2
	서산	40	12		대학원 졸업	23	6.9
	논산	27	8.1		기타	22	6.6
	계룡	9	2.7	월가소득	100만원 미만	39	11.7
	당진	42	12.6		100~200만원 미만	77	23.1
	부여	1	0.3		200~300만원 미만	120	36.0
	서천	1	0.3		300~400만원 미만	53	15.9
	청양	16	4.8		400~500만원 미만	27	8.1
	홍성	27	8.1		500만원 이상	17	5.1
	예산	3	0.9	출신국가	중국	99	29.7
	태안	18	5.4		베트남	121	36.3
나이	20대	61	18.3		필리핀	57	17.1
	30대	150	45.0		캄보디아	9	2.7
	40대	98	29.4		일본	23	6.9
	50대	22	6.6		태국	2	0.6
	60대 이상	2	0.6		몽골	3	0.9
거주기간	1년 미만	21	6.3		네팔	4	1.2
	1~3년 미만	36	10.8		기타	15	4.5
	3년~5년 미만	24	7.2				
	5년~10년 미만	98	29.4				
	10년 이상	154	46.2				

## 2. 측정도구

잠재프로파일 분류를 위하여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즉 친밀도, 수용도, 포용도, 만족도 지표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각 계층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활동 참여도, 활동 만족도,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 직접관람경험, 문화다양성 가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등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다양성 실태보고서'(김면, 2017)에서 개발 및 활용한 문화다양성 관련 지표 중, 활동지표에 해당하는 '소수자의 문화 향유활동 및 창조활동에서

의 다양성' 영역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2008, 2010)에서 사용한 문항 중 문화예술 활동, 모국문화 활동관련 문항을 우복남(2019)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과 척도 그리고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도구

변인설명		척도	$\alpha$	
개인 배경	나이		10대=1~60대이상=5	-
	한국거주기간		1년미만=1~10년이상=5	
	최종학력		초등학교졸업=1~대학원졸업=5	
	월가구소득		100만원미만=1~500만원이상=6	
문화 다양성 인식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친밀도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단일문항
		수용도		.914
		포용도		.874
		만족도		.908
	문화다양성 정책	충남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필요성		단일문항
		충남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필요성		단일문항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개념과 의미 인지도		단일문항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단일문항
		한국 환경에 문화다양성의 가치 필요성		단일문항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889
문화 예술 활동	문화예술 관련 여가 활동	문화예술활동참여도	단일문항	
		문화예술활동만족도	단일문항	
	문화예술 행사 참여	모국의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경험	3점척도 한 번도 없었다=1-자주 있었다=3	단일문항
		관람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행사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910
		관람하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행사		.956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강좌, 체험교실 참여경험	있다=1, 없다=0	이분문항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941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	.961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주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단일문항

### 3. 분석방법

분석 과정을 보면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친밀도, 수용도, 포용도,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 Latent profile analysis, Bartholomew, 1987)을 실시하고, 프로파일을 확인한 후 각 프로파일에서 나타난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별 차이분석을 실시하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적인 특성이 내재된 집단을 분석할 때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즉 데이터에서 잠재된 하위집단을 바탕으로 여러 계층 중에서 한 계층에 개개인이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 분류의 정확한 지수를 제공한다(O'Connor & Colder, 2005; Vermunt & Magidson, 2002). 이 연구방법은 최적의 하위유형 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고, 작은 표본크기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ermunt & Magidson, 2002).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기준을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 분류의 질, 집단 내 분류비율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보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IC)(Sclove, 1987)이며, 두 번째, 모형비교검증은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을(McLachlan & Peel, 2000), 분류의 질은 Entropy (Ramaswamy et al., 1993)로 살펴보았다. 또한 잠재집단의 실제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잠재집단  $k$ 개와  $k-1$ 개인 모형 간 LMRT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차이를 통해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Pastor et al., 2007). 마지막으로 해석의 용이성과 집단별 사례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계층의 수를 선택하였다(Jung & Wickrama, 2008; McCare, Chapman & Christ, 2006). 잠재프로파일 도출 및 잠재집단 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Mplus 8.4(Muthén & Muthén, 1998-2019), 기술통계는 SPSS 24.0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문화다양성 구현수준(친밀도, 수용도, 포용도, 만족도)과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및 만족도, 문화활성화정책필요, 문화다양성 개념 인지도,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한국환경 문화다양성 필요성, 한국사회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충남 문화다양성 정책강화 필요성, 그리고 충남 문화다양성 조례 필요성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분석에 사용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왜도와 첨도의 값도 모두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왜도<3, 첨도<10의 값을 보여 정상분포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표 3〉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②	.648***												
③	.271***	.313***											
④	.263***	.248***	.416***										
⑤	.261***	.265***	.475***	.599***									
⑥	.175**	.235***	.479***	.537***	.710***								
⑦	.245***	.269***	.442***	.406***	.508***	.482***							
⑧	.110*	.059	-.001	-.023	-.059	-.066	-.023						
⑨	.097	.048	-.027	-.048	.043	-.062	-.025	.473***					
⑩	.129*	.107*	-.044	-.015	-.001	-.071	-0.040	.513***	.742***				
⑪	.257***	.366***	.253***	.217***	.245***	.214***	.228***	.078	.155**	.170**			
⑫	.247***	.269***	.538***	.464***	.490***	.507***	.451***	-.156***	-.093	-.132*	.242***		
⑬	.205***	.226***	.512***	.422***	.467***	.501***	.390***	-.149**	-.064	-.136*	.212***	.767***	
평균	3.255	3.517	4.144	3.622	4.033	4.252	3.908	3.045	3.124	3.126	3.301	4.138	4.078
표준편차	.987	.990	.820	.885	.785	.758	.881	.948	.852	.789	.709	.795	.748
왜도	-.152	-.412	-.635	-.229	-.396	-1.000	-.566	.017	-.074	-.092	-.011	-.868	-.475
첨도	-.225	-.079	.020	-.163	-.250	1.716	-.012	-.404	-.092	.288	.676	1.182	.117

\*p<.05, \*\*p<.01, \*\*\*p<.001

①문화예술행동참여도 ②문화예술행동민족도 ③문화예술행동정책필요 ④문화다양성개념인지도 ⑤문화다양성가치에대한동의 ⑥한국환경문화다양성필요성  
 ⑦한국사회문화양성수준 ⑧진밀도 ⑨수용도 ⑩표용도 ⑪만족도 ⑫충남문화다양성정책강화필요성 ⑬충남문화다양성조례필요성

## 2.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른 잠재계층 구분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존재하는 잠재계층 수를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AIC, BIC와 sBIC값과 같은 정보지수는 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2계층에서 3계층으로 계층을 증가시켰을 때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은 5계층이 가장 높았으며, 모형비교 검증 지수인 BLRT값은 2~5계층 모두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계층이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비율도 각 계층별 5% 이상 분포하고 있어(Jung & Wickrama, 2008), 최종적으로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AIC=2933.284, BIC=3001.831, Entropy=.831, BLRT( $p < .001$ ))선택하였다. 또한 잠재계층 모형의 분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 사후확률을 산출하였으며, 3개의 잠재계층의 평균 사후확률 범위는 .869~.934로 1.0에 가까운 높은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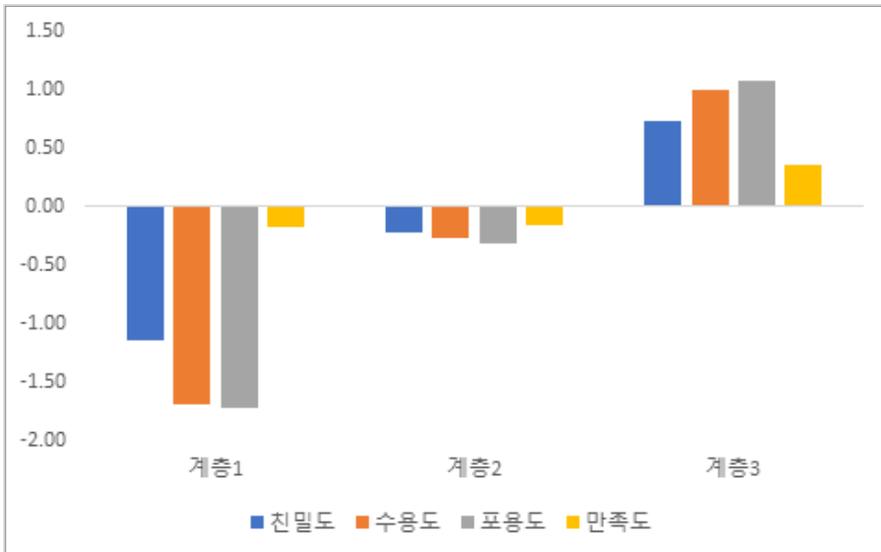
<표 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프로파일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정보지수	AIC	3040.949	<b>2933.284</b>	28883.798	2838.030
	BIC	3090.455	<b>3001.831</b>	2971.385	2944.658
	sBIC	3049.218	<b>2944.734</b>	2898.428	2855.840
분류의 질	Entropy	.745	<b>.831</b>	.835	.892
모형비교검증	LMRT	$p < .001$	<b><math>p = .184</math></b>	$p = .089$	$p = .265$
	BLRT	$p < .001$	<b><math>p &lt; .001</math></b>	$p < .001$	$p < .001$
분류	계층1 n(%)	203(61)	<b>32(10)</b>	42(12)	40(12)
	계층2 n(%)	130(39)	<b>195(58)</b>	9(3)	8(2)
	계층3 n(%)		<b>106(32)</b>	182(55)	170(51)
	계층4 n(%)			100(30)	104(31)
	계층5 n(%)				11(3)

## 3.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른 프로파일

최종으로 선정된 3계층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른 계층별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계층 1은 32명으로 전체의 10%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친밀도, 수요도, 포용도 그리고 만족도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저수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195명(58%)으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했다. 문화다양성 수준은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지만 저수준 집단 보다는 높은 값을 보여 ‘중수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 3은 106명, 32%의 비율을 보였으며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모든 지표가 모두 가장 높은 값을 보여 ‘고수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른 계층 유형 [Z점수 변환]

더불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지표 즉, 친밀도, 수용도, 포용도 그리고 만족도에 따른 각 계층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저수준집단’ 보다는 ‘중수준집단’이, ‘중수준집단’ 보다는 ‘고수준집단’이 더 높은 값을 보였다.

<표 5>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지표에 따른 차이

지표	계층1 저수준 n=32(10%)	계층2 중수준 n=195(58%)	계층3 고수준 n=106(32%)	F	Scheffé
친밀도	1.969(.647)	2.841(.793)	3.745(.794)	79.694***	계층1 <계층2 <계층3
수용도	1.694(.443)	2.897(.519)	3.974(.538)	282.542***	
포용도	1.775(.462)	2.885(.412)	3.976(.445)	400.322***	
만족도	3.174(1.197)	3.186(.586)	3.551(.665)	10.198***	

\*\*\*p<.001

#### 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프로파일별 특성

잠재프로파일 분류에서 선정된 3개의 계층에 대한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계층에 따른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개인배경,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인식,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문화예술 관련 여가 활동, 문화예술 행사 참여,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의 경우 '저수준집단'은 서산에 가장 많이 거주했고, '중수준'과 '고수준집단'은 아산, 천안, 당진 순으로 많이 거주했다. 나이는 세 집단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거주기간도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중수준'과 '고수준집단'은 5년~10년 미만의 여성들도 10년 이상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저수준'과 '중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고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월가구 소득은 저수준은 100이상 200만원 미만이 '중수준'과 '고수준'은 200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가장 많았다. 집단별 출신국가는 세집단 모두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이 많았다.

〈표 6〉 문화다양성 구현수준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변인		저수준집단 n=32 명(%)	중수준집단 n=195 명(%)	고수준집단 n=106 명(%)
거주지	천안	5(15.6)	34(17.4)	20(18.9)
	공주	0(0.0)	7(3.6)	0(0.0)
	보령	4(12.5)	17(8.7)	4(3.8)
	아산	2(6.3)	35(17.9)	21(19.8)
	서산	7(21.9)	21(10.8)	12(11.3)
	논산	4(12.5)	13(6.7)	10(9.4)
	계룡	1(3.1)	4(2.1)	4(3.8)
	당진	2(6.3)	31(15.9)	9(8.5)
	부여	0(0.0)	0(0.0)	1(0.9)
	서천	1(3.1)	0(0.0)	0(0.0)
	청양	3(9.4)	9(4.6)	4(3.8)
	홍성	1(3.1)	12(6.2)	14(13.2)
	예산	1(3.1)	2(1.0)	0(0.0)
	태안	1(3.1)	10(5.1)	7(6.6)
나이	20대	7(21.9)	39(20)	15(14.2)
	30대	15(46.9)	81(41.5)	54(50.9)
	40대	9(28.1)	60(30.8)	29(27.4)

변인		저수준집단 n=32 명(%)	중수준집단 n=195 명(%)	고수준집단 n=106 명(%)
	50대	1(3.1)	13(6.7)	8(7.5)
	60대 이상	0(0.0)	2(1)	0(0.0)
거주기간	1년 미만	5(15.6)	11(5.6)	5(4.7)
	1~3년 미만	4(12.5)	24(12.3)	8(7.5)
	3년~5년 미만	3(9.4)	11(5.6)	10(9.4)
	5년~10년 미만	5(15.6)	62(31.8)	31(29.2)
	10년 이상	15(46.9)	87(44.6)	52(49.1)
최종학력	초등학교졸업	0(0.0)	8(4.1)	2(1.9)
	중학교졸업	2(6.3)	28(14.4)	10(9.4)
	고등학교졸업	16(50)	83(42.6)	35(33)
	대학교졸업	12(37.5)	53(27.2)	39(36.8)
	대학원졸업	1(3.1)	10(5.1)	12(11.3)
	기타	1(3.1)	13(6.7)	8(7.5)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8.8)	22(11.3)	11(10.4)
	100~200만원 미만	10(31.3)	44(22.6)	23(21.7)
	200~300만원 미만	7(21.9)	77(39.5)	36(34)
	300~400만원 미만	3(9.4)	33(16.9)	17(16.0)
	400~500만원 미만	3(9.4)	8(4.1)	16(15.1)
	500만원 이상	3(9.4)	11(5.6)	3(2.8)
출신국가	중국	9(28.1)	59(30.3)	31(29.2)
	베트남	13(40.6)	68(34.9)	40(37.7)
	필리핀	3(9.4)	36(18.5)	18(17.0)
	캄보디아	3(9.4)	4(2.1)	2(1.9)
	일본	3(9.4)	11(5.6)	9(8.5)
	태국	0(0.0)	2(1.0)	0(0.0)
	몽골	1(3.1)	2(1.0)	0(0.0)
	네팔	0(0.0)	3(1.5)	1(0.9)
	기타	0(0.0)	10(5.1)	5(4.7)

다음으로 유형에 따른 특성 차이 분석결과 3개의 계층이 나이, 거주기간, 최종학력, 월가구소득, 문화예술 활동만족도,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 이주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 그리고 한국 환경에 문화다양성의 가치 필요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3개의 계층 모두 개인배경과 인식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예술 활동참여도, 관람하고 싶은 한국·모국의 문화예술행사, 배우고 싶은 모국은 문화예술,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 인지도,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충남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필요성 그리고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필요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화예술 활동참여도와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은 '중수준집단'보다 '고수준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고, 관람하고 싶은 한국·모국의 문화예술행사는 '중수준집단'보다 '저수준', '고수준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과 개념과 인지도에서는 '중수준집단'보다 '저수준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남 문화다양성 강화 필요성과 조례제정 필요성은 '고수준집단'보다 '저수준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표 7〉 문화다양성 구현수준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특성 차이

변인	저수준집단 m(s.d)	중수준집단 m(s.d)	고수준집단 m(s.d)	F	Scheffé
나이	3.125(.793)	3.272(.893)	3.283(.802)	.455	-
한국거주기간	3.656(1.558)	3.974(1.229)	4.104(1.146)	1.623	-
최종학력	2.500(.916)	2.621(1.296)	2.858(1.253)	1.627	-
월가소득	2.875(1.561)	2.969(1.235)	3.123(1.285)	.682	-
문화예술활동참여도	3.219(.870)	3.138(.993)	3.481(.978)	4.246*	중<고
문화예술활동만족도	3.344(1.066)	3.456(1.011)	3.679(.911)	2.298	-
관람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행사	4.150(.907)	3.734(.793)	4.038(.721)	7.414**	중<저, 고
관람하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행사	4.350(.939)	3.758(.881)	4.051(.799)	8.627***	중<저, 고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	3.906(1.082)	3.729(.910)	3.834(.823)	.813	-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	4.069(.998)	3.634(.936)	3.809(.853)	3.655*	중<저
이주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	4.344(.787)	4.103(.843)	4.160(.782)	1.222	-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 인지도	3.969(.861)	3.533(.863)	3.679(.911)	3.712*	중<저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4.219(.751)	3.933(.806)	4.16(.732)	3.930*	-
한국 환경에 문화다양성의 가치 필요성	4.406(.837)	4.236(.757)	4.236(.737)	.729	-
문화다양성의식수준	3.306(1.191)	3.401(.647)	3.664(.726)	5.269**	중<고
충남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필요성	4.438(.914)	4.154(.791)	4.019(.743)	3.557*	고<저
충남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필요성	4.344(.827)	4.092(.726)	3.972(.749)	3.163*	고<저

\*p<.05, \*\*p<.01, \*\*\*p<.001

## V. 논의 및 결론

현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도록 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사회 내에 제대로 인식돼 있어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문화다양성이 사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노시훈, 2020). 이에 본 연구는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탐색해 보고 도출된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지표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다.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준집단'과 중간 값을 유지하는 '중수준집단' 그리고 4개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고수준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이질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라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좀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분류에서 선정된 3개의 계층에 대한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거주지, 나이, 최종학력, 출신국가 등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저수준집단'은 서산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중수준'과 '고수준집단'은 천안과 아산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나이와 거주기간 분포는 세 집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최종학력은 '저수준'과 '중수준집단'은 고등학교 졸업이, '고수준집단'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월가구 소득은 '중수준'과 '고수준집단'이 '저수준 집단'에 비해 100만원 정도 더 많았으며, 출신국가는 3집단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출신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배경,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인식,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문화예술 관련 여가 활동, 문화예술 행사 참여,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3개의 계층이 나이, 거주기간, 최종학력, 월가구소득, 문화예술 활동만족도, 배우고 싶은 한국의 문

화예술, 이주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 그리고 한국 환경에 문화다양성의 가치 필요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3개의 계층 중 친밀도, 수용도, 포용도 그리고 만족도는 고수준집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배경과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인식,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문화예술 관련 여가 활동, 문화예술 행사 참여,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인식에서는 3개의 계층이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충남의 문화예술 관련하여 문화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 및 문화다양성 요소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우복남, 2019). 특히 서산과 천안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30대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우선순위의 정책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문화예술 활동참여도, 관람하고 싶은 한국·모국의 문화예술행사,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 인지도,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충남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필요성 그리고 문화다양성 조례제정 필요성은 계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화예술 활동참여도와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은 '중수준집단'보다 '고수준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고, 관람하고 싶은 한국·모국의 문화예술행사는 '중수준집단'보다 '저수준', '고수준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고 싶은 모국의 문화예술과 개념과 인지도에서는 '중수준집단'보다 '저수준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남 문화다양성 강화 필요성과 조례제정 필요성은 '고수준집단'보다 '저수준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 계층 간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는 '중수준집단'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충남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필요성과 조례제정 필요성은 '고수준집단'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그 외의 변인들은 '중수준집단'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즉 친밀도, 수용도, 포용도 그리고 만족도가 중간 수준의 집단이 저수준 집단보다 오히려 문화예술 행사참여, 문화다양성인식수준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관련 추진 조직의 구조와 협력체계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별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이 상이하고, 운영시스템과 지역 여건에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나름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김면, 2019). 충남의 이주여성들은 문화다양성 인식과 가치 동의 정도가 전국 결혼이주민 보다 더 높았고,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도 전국 결혼이주민 대비 충남 결혼이주여성의 동의정도가 높았다. 또한 한국 사회로부터의 거리감도 전국 대비 덜 느끼며, 불편, 불평등 대우 등의 수용도 역시 전국 보다 더 수용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면, 2017) 이러한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 활동참여도, 관람하고 싶은 모국·한국의 문화 예술행사나 배우고 싶은 모국의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고,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가치에 대한 동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이 3개의 계층 중 제일 낮은 '중수준집단'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 한국과 모국의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고 배우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문화다양성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저수준집단'은 충남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와 조례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예술행사의 국내외 장르 다양성과 더불어 이주민 모국문화예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체계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우복남, 2019; 김영순·김창아, 2016). 또한 문화다양성 인식과 관련하여 이주민과 이주민 문화의 이해와 편견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외국인주민을 고려함으로써 지역정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충남에는 다수의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함을 염두에 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며, 이주민들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 민족 문화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 출신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양립·조화시켜갈 수 있는 통합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김광수 2017; 원숙경·윤영태, 2019).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함으로써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이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각 집단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세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 선정 및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잠재계층 별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수준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인식과 문화예술활동 변인들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충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다양성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하나의 일례를 기반으로 하는 제한적인 분석과 논의라 할지라도, 정책입안자 혹은 연구자들에게 지도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본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충남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의 잠재계층 분류와 잠재계층 별 특성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패널 자료의 특성상 제한적으로 조사된 문항과 요인이 사용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 구축을 통해 구조화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대한 횡단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추후에는 충남 결혼이주자들의 데이터가 매년 축적되어 종단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충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균형 잡힌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 제시를 위해 전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수(201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접변에 관한 질적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6호. 651-660.
- 김면(2017).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9). *문화다양성 시대, 지금까지와 앞으로*.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영순, 김창아(2016). “베트남 소수민족 전문가의 문화다양성 정책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1호. 259-285.
- 김혜숙·김도영·신희천, 이주연(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2호. 51-89.
- 노시훈(2020).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과 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59권. 703-740.
- 라도삼·조윤정, 이정현(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민지선·김두섭(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6권 제4호. 71-94.
- 박윤경·류상희·이은주(2015). “지역 사회의 문화다양성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태도 \_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9권 제3호 24-43.
- 송유진(2008).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제31권 제2호. 1-20.
- 송화성·이영안·강영애(2020).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제약협상 유형과 특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을 이용하여”. *관광연구*. 제35권 제3호. 1-23.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복남(2019).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문화다양성 증진방안*. 충남: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원숙경·윤영태(2019).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주민 대상의 다문화 미디어교육프로그램 개발전략”.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3권 제1호. 4-29.
- 윤인진·송영호(2013).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재외한인연구*. 제30권. 7-40.
- 이민정·이영선(2017). “그림책활용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

- 중감, 사회적 유능감 및 개인적 성장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2권 제3호. 103-130.
- 이진형(2019). “결혼이주여성 여가연구 10 년: 성과와 향후 방향”. 관광학연구. 제43권 제1호. 205-229.
- 이현서·김혜숙·신희천·최진아(2013).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여가생활 변화 인식과 삶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 여가학연구. 제11권. 31-58.
- 전윤주·서광봉·임진선(2012).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제약 협상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지 (구 여가웰니스학회지). 제3권 제2호. 31-56.
- 조선주·오현경·민현주(2017).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109-140.
- 행정안전부(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세종: 지방자치분권실.
- 황정미(2009). “이주의 여성화’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2호. 1-37.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rnesen, A. L., Hadzhitheodoulou-Loizidou, P., Bîrzéea, C., Essomba, M. A., & Allan, J. (2008). *Teacher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for teaching socio-cultural diversity*. Council of Europe.
- Bartholomew, D. J. (1987). *Latent variable models and factors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 Johnson, D. W., & Johnson, R. T. (2002). Cooperative learning and social interdependence theory. In *Theory and research on small groups*. Springer, Boston, MA.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302-31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Lanza, S. T., & Rhoades, B. L. (2013). Latent class analys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subgroup analysis in prevention and treatment. *Prevention Science*, 14, 157-168.

-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 468-481.
- McLachlan, G., & Peel, D. (2000). *Mixtures of factor analyzers*. In In Proceedings of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 limited and life 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pp.674.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9). *Mplus user's guide*(8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O'connor, R. M., & Colder, C. R. (2005). Predicting alcohol patterns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rough motivational systems and reasons for drinking.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 10.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 8-47.
- Ramaswamy, V., DeSarbo, W. S., Reibstein, D. J., & Robinson, W. T. (1993). An empirical pooling approach for estimating marketing mix elasticities with PIMS data. *Marketing Science*, 12, 103-124.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11, 60.

Abstract

## Characteristics Comparison according to the Level of Cultural Diversity Realiz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Chungnam Province

Seung Hiey, Baek\*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estimate the latent classes of cultural diversity real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on these latent profiles. In order to do this, data from the data 333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Chungnam Province was used. By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three distinct latent classes of cultural diversity realization were found. These classes were named 'high-level group', 'intermediate-level group' and 'low-level group'. Second, one-way ANOVA analysis indicated that participation in activities, concept and meaning awareness, consent to values, level of consciousness, necessity of strengthening Chungnam policy and the necessity of ordinance establishment were significant factors. Implication of the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marriage migrant women, cultural diversity realization

---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